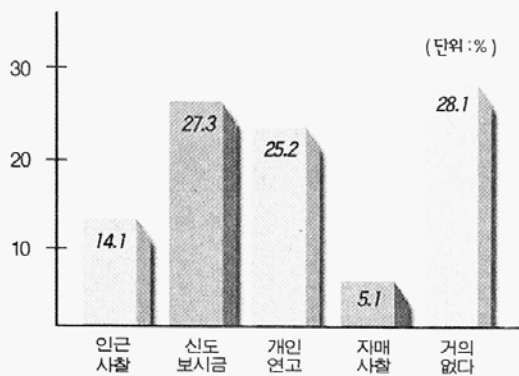


군승특별교구 설치 64%



대정확보 현황

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35.2%의 응답자가 구조적 취약성에 원인이 있다고 답변 반면 젊은이 대상의 포교방법론 부재(19.3%), 군법사들의 열의 부족(17.1%)을 원인으로 꼽았다.

군법사들은 또 수계장병들의 전

한 관계를 유지해 전역불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37.5%)고 응답했다. 군승단의 전산화(26.1%), 수계 때 재정사찰을 정하는 방법(18.2%)도 제시됐다.

한편 군법사들은 전역 후 스님의

특정종교 강요 경험 94% 전역불자 관리대책 급선무

역 후 불자화가 안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전역 후 관리를 위한 군법당과 사찰과의 연계가 안되기 때문(69.3%)이라고 지적했다. 수계 이후 심화된 불교공부부족이 없기 때문, 군 특성상 일시적인 불교귀의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5.9%, 10.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법당-사찰간 자매결연 등의 돈독

불교단체의 소임을 맡아 활동(21.7%), 포교원을 설립(19.3%)해 불교활동을 계획하거나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와 무관하게 취직 또는 사업을 하겠다는 응답은 10.2%로 대부분 불교활동에 강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정성운 기자

“부처님 가피로 가쁜한 병영생활”

원주 1군사령부 법웅사 탐방

10월8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도심속에 위치한 1군사 법당 법웅사(주지 조길중)대웅전. 초가을 밤의 냉랭한 바람공기는 대조적으로 법당은 원주지역 군장 병졸 4백여명의 불심 열기가 가득하다.

과자와 음료수 등을 나누며 병사들을 격려한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김도안 상병은 “군생활중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불법은 많은 용기를 준다”며 “불자로서 병졸 4백여명의 불심 열기가 계속 정진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법웅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매주 수요일 저녁 봉행되는 정기법회. 1군지역 사병부자들이 참선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지역장병 4백여명 신행요람 부대별 방문 ‘소법회’ 3년째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마친 후 한영규(1군지사) 법사가 ‘무명을 벗어나는 길’이란 주제로 설법하고 있다. “무명을 벗어나 밝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길은 자기 성찰을 통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반성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1시간 동안의 법회가 끝나자 헌법사는 신도들과 함께 마련한

이러 일요일 오전에도 장병부자들을 위한 법회를 봉행한다. 수요일 법회는 불자들이 갖춰야 할 교리, 의식, 예절 등을 교육하는 사병위주의 법회. 일요일 정기법회는 부처님 말씀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주로 법문하며 군간부와 민간신도들도 참석한다. 94년 1군지사에 부임한 한영규 법사는 정기법회에 매주2회씩 참

여하는 사병부자들과는 달리 다른 일과로 법회동참이 어려운 간부부자들을 직접 찾아가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 1군지사 회의실에서 30분간 소법회를 3년째 주재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영규법사는 “군내에서 타종교에 비해 수적인 열세에 있는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수준과 특성에 맞는 개별방문 포교를 해야 한다”며 능동적인 포교전략을 강조했다.

한편 법웅사는 군법회 이외에도 육군교도소 위문과 복지단체 봉사활동을 비롯 어린이 및 중·고등부법회, 청년회법회, 대불연법회, 부부동반 법담자회법회, 거사님 정각회법회, 정년퇴직자들을 위한 성법회법회 등 매 주 10차례의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원주지역 불자들의 신행센터로 특별히 역할하고 있다.

원주=김주일 기자

설문내용

※군포교 활성화 위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1. 월 평균 법회 횟수는? 15회
2. 월 평균 삼강 횟수는? 13회
3. 월 평균 위문법회 횟수는? 5회
4. 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과 군법사라는 이름의 신분 때문에 갈등을 겪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자주 경험(27.3)
② 가끔 경험(46.6)
③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19.3)
④ 없었다(6.8)
5. 만일 지휘자가 자신의 특정종교를 강요한다면?
① 확증할 수밖에 없다(4.5)
②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설득하겠다(35.2)
③ 있을 수 없는 일로 불복하겠다(60.3)
6. '1인 1종교'가 운동에 대한 견해는?
①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폐단이 있다(46.6)
② 운동상의 문제라고 본다(46.6)
③ 부작위가 있으나 바람직하다(6.8)
7. '1인 1종교'가 운동 때문에 불이익·불공정 시대를 경험하거나 주위로 부터 등을 적이 있었습니까?
① 직접 경험했다(45.5)
② 그런 사례를 들었다(47.7)
③ 경험하지도, 들은 적도 없다(5.7)
④ 무응답(1.1)
8. 현행 군중에서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점은(복수응답)
① 지휘부의 운동개입 태도(9.3)
② 지원예산의 부족(28.5)
③ 1인 1종교가기의 획일적 추진(7.1)
④ 종교별 신자수 추세를 고려하지 않는 운동(9.3)
⑤ 법회 장소의 부족(6.5)
⑥ 법사 부족(27.6)
⑦ 신행활동 시간의 부족(2.8)
⑧ 교재 부족(8.9)
9. 군포교활동의 재정지원은 어디서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까?
① 인근 사찰(14.1)
② 신도(장병) 보시금(27.4)
③ 개인 연고(스님, 단체 또는 친지)(25.3)
④ 지매결연 사찰·단체(5.1)
⑤ 거의 없는 편이다(28.1)
10. 재정지원 방식은?
① 정기(25.0)
② 부장기(69.3)
③ 무응답(5.7)
11. 법회 운영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① 부대 예산지원(3.4)
② 후원금(23.0)
③ 신도(장병) 보시금(40.5)
④ 개인 부담(33.1)
12. 법회시 설법자료는 주로 무엇을 활용합니까?
① 정경 및 불서(69.4)
② 불교계 신문 및 잡지(17.0)
③ 일반서적·잡지(13.6)
13. 현재의 군법사 부족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① 지역 사찰과 협조(45.5)
② 예비역법사의 활용(23.9)
③ 재가법사의 활용(15.8)
④ 군중병의 활용(5.7)
⑤ 군법사 화종(5.7)
⑥ 무응답(3.4)
14. 타부대와 달리 귀하의 부대만의 특성을 살린 법회 또는 모임이 있습니까?
① 참상법회(5.7)
② 교양강좌(21.6)
③ 특경대회(8.0)
④ 준비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없다(31.8)
⑤ 기타·무응답(32.9)
15. 타종교의 집회 모습이 부러웠다면, 어떤 점이 그랬습니까?
① 참여 장병이 많은 것(12.5)
② 지역 종교단체의 후원(71.6)
③ 군부대의 지원이 많은 것(1.1)
④ 집회장소가 불교에 비해 좋은 것(8.0)
⑤ 무응답(6.8)
16. 타종교 군복사 군신부와의 관계는?
① 자주 만나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다(19.3)
② 자주 만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눈다(39.7)
③ 이해관계로 만날 뿐이다(33.0)
④ 서로 경광경개라고 생각한다(8.0)
17. 육군특수전교과 불교단원사건에 대한 조계종단의 대처에 대한 견해는?
① 군법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어려움을 가중(11.3)
② 적절한 대처였다(58.0)
③ 미온적이었다(17.0)
④ 해당자의 인사조치는 가혹했다(8.0)
⑤ 군내의 여론이 있었다(5.7)
⑥ 무응답(8.0)
18. 과거 군내 해병사건에 군법사들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견해에 대해?
①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한다(39.8)
② 군의 특성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27.3)
③ 적절한 대응이었다(17.0)
④ 전과 등 현실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10.2)
⑤ 무응답(5.7)
19. 군법사 감소(92년 18만7천여명, 96년 15만7천여명)의 원인은?
① 군법사들의 열의 부족(17.1)
② 젊은이 대상의 포교방법론 부재(19.3)
③ 군법사 부족 등 군포교의 구조적 취약성(35.2)
④ 장병들의 불교에 대한 무관심(10.2)
⑤ 군내의 불공평한 군중정책(12.5)
⑥ 무응답(5.7)
20. 수계장병들의 전역 후 불자화가 안되고 있는 원인은?
① 군 특성상 일시적인 불교귀의가 일반적이기 때문(10.3)
② 수계 이후 심화된 불교공부부족이 없기 때문(15.9)
③ 전역 후 관리를 위한 군법당과 사찰과의 연계가 안되기 때문(69.3)
④ 무응답(4.5)
21. 전역불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① 군승단의 전산화가 급선무다(26.1)
② 수계 때 재정사찰을 정한다(18.2)
③ 군법당-사찰간 자매결연을 맺어 돈독한 관계를 유지(37.5)
④ 기타·무응답(18.2)
22. 스님의 포교활동을 자립한다면, 몇 점(10점 만점)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① 1~3(6.8)
② 4~6(34.1)
③ 7~8(48.9)
④ 9~10(6.8)
⑤ 무응답(3.4)
23. 군승특별교구 설치에 대한 견해는?
① 특별교구를 설치해 군포교 정반을 권장(63.6)
② 취지 유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4.5)
③ 수행 포교 등 군법사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18.3)
④ 특별교구보다 군승단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10.2)
⑤ 무응답(3.4)
24.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 정도에 대한 견해는?
① 원만한 것(9.1)
② 관심이 높은 편(9.1)
③ 관심이 낮은 편(19.3)
④ 관심이 몇몇 사찰이나 단체에 한정(60.2)
⑤ 무응답(2.3)
25. 군법사의 활동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① 종단차원의 지원 확대(47.7)
② 불자들의 인식전환(10.2)
③ 군법사의 지원 향상(26.2)
④ 전역 후 일자리 보장(12.5)
⑤ 무응답(3.4)
26. 군법사 선발대상에 위대대학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위대대학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19.3)
② 방식이 다르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18.3)
③ 불교의 교육과정을 거쳐 받아들여야 한다(42.0)
④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한정(17.0)
⑤ 무응답(3.4)
27. 군포교특별기금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기금마련을 위해 지원사찰을 지정(28.4)
② 군승단 지원예산에 대폭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31.3)
③ 군법사 생활 교구에 지원예산을 편성(29.5)
④ 종단차원에서 일정한 상에서 비현실적이다(4.5)
⑤ 무응답(6.3)
28. 예비역군법사의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① 사찰의 상임포교사로 우선 임용(55.7)
② 중무류 임용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12.5)
③ 포교원 개원시 지원(11.4)
④ 무응답(20.4)
29. 전역 후 불교활동 계획은?
① 스님으로 수행·포교(29.5)
② 포교원 설립(19.3)
③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소임을 맡아 활동(21.7)
④ 불교와 무관하게 취직 또는 사업(10.2)
⑤ 무응답(19.3)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

명예회장 월 탄
고 문 호진, 지하, 직전회장 압도

회 장 제 총	홍우부장 도	장 포교연구분과위원장 성원
수석부회장 원 성	심의부장 이 정	복지문제분과위원장 시현
부 회 장 장산, 일우, 지홍, 삼지	조직부장 도 진	재가법사분과위원장 원명
감 사 정덕, 일변	재무부장 종 립	동국학원총총위원장 원성
기획실장 동 성	문화부장 상 덕	동국학원총총부위원장 법장
사무총장 지 원	통일인권분과위원장 진관	사무국장 신 중
		동국학원총총위간사 법안

■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동 1506호 ■ 전화 : 02)723-5264/736-6203 ■ FAX : 736-2365

대한불교조계종 소림정사

주 지 옥룡자

소림불교아카데미

소림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일동

■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번지 ■ 전화 : 02)511-6210~6

대한불교조계종 수안사 (수안불교대학)

주 지 박세민

◆ 수안불교대학 학생 및 대학원생 모집 ◆

- 이지관스님(금강경)
- 목정배 교수(한국불교문화사)
- 권기종교수(기초불교교리)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8~12 ■ 전화 : 02)587-4677

선·관·단·식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 : 기아·공복감이 없다.
- 생수, 해독사, 열분·지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염불심매수련·선관심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받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선관단식(禪觀斷食) 가이드북을 우송해 드립니다.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외룡산 용남선원
●안 내 : (0593)34-1115~6, 012-598-1015

명신인쇄

■ 주소 : 서울시 중구 예관동 136

성불불사 포교원

석가세존 일대기
팔상록·부모은중경(금강경, 반야심경)
8폭병풍 보급중

■ 전 화 : 02)831-2848~9
■ 수신자부담 : 080)284-2848
■ FAX : 02)831-2849

부산불교운전기사회 9주년 기념

회장 백봉도
임원 일동

■ 전화 : 051)624-2207

인 컴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1213-40

정경기획

■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5-6